

'이웃 만나고 문화 나누기' 주민 공감·교류 속 마무리

광주 서구문화원 '2026 서빛문화페스타' 성료 브런치 문화콘서트·전시·디저트 체험 등 '다채'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지난 29일 마련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소통 행사 '2026 서로 문화를 담다. 서빛 문화페스타'가 주민들의 공감과 교류 속 마무리됐다.

일상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이번 서빛문화페스타는 공연과 특강, 전시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하루 동안 문화원 안팎에는 공연의 선율과 사람들의 목소리, 전시를 바라보는

눈길과 체험에 참여하는 손길이 차곡차곡 쌓이며, 이름 그대로 서로의 문화를 담은 풍경이 펼쳐졌다.

행사의 시작은 브런치 문화콘서트였다. 첫 무대에 오른 손지현, 안현섭씨의 선율에 관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어 진행된 미니특강에서는 정인서 원장이 '기록문화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했다.

정 원장은 "기록이란 단순히 문장이나



지난 29일 광주 서구문화원이 마련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소통 행사 '2026 서로 문화를 담다. 서빛문화페스타'가 주민들의 공감과 교류 속 마무리됐다.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 아니라,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담아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남기는 일이 곧 지역문화를 지키고 이어가는 일이라는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아울러 문화원 내에서 전시도 함께 운영됐다.

1층 로비에서는 지역 이웃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찰나에 담은 우리 이웃'이 열려 익숙해서 쉬이 지나온 주변 인물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간 2층 로비에서는 양동초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 풍경을 담은 '우리가 보는 서구-광주양동초 편'이 펼쳐졌다. 두 전시는 어른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교차해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의 장을 선보였다.

아울러 전통과 예술을 몸으로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1층 다가

치커뮤니티에서는 흑임자 다식을 만들어 보는 한식 디저트 체험 '전통-한입에 담은 우리 맛'이 진행돼 전통 식문화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2층 발산아트홀에서는 김선희 작가와 함께 석고봉대를 활용한 미술 체험 '미술-손에 담은 우리 마음'이 진행됐다.

정인서 원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문화원을 더 가깝고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고, 문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삶과 기억,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도, 민·관·학 통합봉사로 지역 상생 실천

사회적기업 등 300여명 순천 별량면서 봉사활동

전남도와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순천시 별량면 순천별량중학교 체육관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학 협력 기반의 생활밀착형 통합봉사를 펼쳐 지역 상생을 실천했다.

'가치-UP 상생 나눔 프로젝트 통합봉사'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지원사업의 하나로,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진행된 사회연대경제 분야 자원봉사활동이다.

행사에는 전남지역 대학생 연합봉사단과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별량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민·관·학 협력 기반의 지역 상생 봉사활동을 펼쳤다.

통합자원봉사단은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활용한 치매 예방 활동, 건강 체크,



전남도와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순천시 별량면 순천별량중학교 체육관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학 협력 기반의 생활밀착형 통합봉사를 펼쳐 지역 상생을 실천했다.

의료재활 마사지, 네일아트, 헤어 컷트 등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했다. LED등 교체, 가스안전장치와 화재감지기 설치 등 주거 안전 지원 활동도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취사녹취-동백가치점, 순천로컬푸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아름다운가게 순천중앙점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전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강경문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통합봉사는 대학과 기업, 자원봉사센터

가 협력해 지역사회에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명시와 함께 떠나는 철학적 사유 여행

석연경 소장 '세계 시의 미학과 철학' 인문학 강좌 진행

전남순천을 연고로 한 영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석연경·사진)는 '세계 시의 미학과 철학'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를 1일부터 7월 8일까지 갖는다.

이번 강좌는 동서양의 대표 시인과 명시를 통해 인간 존재와 언어, 사랑과 죽음, 자연과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탐구하는 대학원 수준의 문학 수업으로 다뤄진다.

강좌에서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비롯해 독일 존재론적 시학, 영미 모더니즘, 러시아 혁명기 시문학, 중남미 초현실주의 시, 중국과 일본의 자연·침묵의 미학, 한국 현대시의 자연·서정·존재의 미학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작품 해설과 더불어 시와 철학, 존재론, 인간 내면의 문제를 함께 탐색하는 심



화 인문학 강좌로 구성돼 문학 애호가와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의를 맡은 석연경 소장은 이번 강좌에 대해 "시는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이 비추는 언어"라며 "이번 강좌가 세계 명시를 통해 삶과 존재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 순천시 중앙2길 11-19(순천시장 옆)에 위치한 영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에서 진행되며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한편 '세계 시의 미학과 철학' 강좌는 시와 문학, 철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전남소방본부, 기후 위기 복합재난 대응 온 힘

장흥서 산사태로 건물붕괴 가정 유관기관 합동 훈련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29일 장흥에 위치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했다.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 빈도가 높아진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산사태, 대규모 건물 붕괴, 대형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 상황을 대비, 유관기관 합동 현장 지휘·총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전 예고 없이 부여된 재난 상황 메시지에 따라 전남소방본부와 장흥소방서 등

소방 인력, 지자체, 경찰,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에 출동·대응하는 실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고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인 체육인재개발원에 산사태로 인한 구조물 붕괴 및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상황을 부여했다. 전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은 즉시 1단계 가동에 돌입해 대형 재난 현장지휘 버스를 전진 배치하고, 장흥소방서장으로 부터 현장 지휘권을 이양받아 도 차원의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파악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장흥에 위치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했다.

된 무선 통신 장애 구역 발생과 유관기관 자원 집결지 훈련 등 일부 미비점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불시가동훈련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빈틈을 찾아내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도민이 신뢰하는 빈틈없는 전남형 재난 지휘 컨트롤타워를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재난대응 역량 강화 훈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166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접수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상황' 가상 메시지를 접수한 뒤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이어 배수장 가동 책임자가 현장으로 즉각 출동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으며, 실제 배수펌프장을 가동해 배수펌프 및 수문 등 주요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밀 확인했다.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협조 체계도 다시 한번 살폈다.

전남본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배수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예방 정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평소 사전 점검과 반복적인 실전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요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레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4월 16일)

- | | | |
|---------------------------|---------------------------|---------------------------|
| 48년생 아랫사람에게 언행을 조심하라 | 49년생 말을 아끼지 않으면 공로가 무너진다 | 50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라 |
| 60년생 추유증이 따르겠다 | 61년생 노력 못지 않게 행운도 따라준다 | 62년생 큰 과업에 집중하라 |
| 72년생 거레에 걸등 생기겠으니 자리 지켜라 | 73년생 노력 무리한 사세 화장은 안됩니다 | 74년생 빨리 모든 미련을 버려라 |
| 84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자 | 85년생 현실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 | 86년생 금전 회전이 쉽지 않다 |
| 96년생 바쁘게 쓰다녀야 할 일이 벌어지겠다 | 97년생 주목 받게 된다 | 98년생 일괄되게 행동하라 |
| 51년생 정당한 일이라면 성사된다 | 52년생 교통사고 주의 특히 현상 차 조심하라 | 53년생 혼자 살지 못하니 화해하라 |
| 63년생 분수에 맞게 인해야만 복이 따르리라 | 64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 65년생 가능성은 열어두고 과할 필요는 없다 |
| 75년생 한 단계 낮춰 생각할 때 | 76년생 사람들을 진실으로 대하도록 하라 | 77년생 믿고 복이 따를 것이니 |
| 87년생 끝까지 경청해봐라 한다 | 88년생 손실 따르지만 효과도 동반 할 것 | 89년생 동쪽에 이로운 일이 있으니 가보라 |
| 99년생 위사람의 도움 얻으니 입신양명의 날 | 55년생 사업은 추진력이 있어야 대성한다 | 56년생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 |
| 64년생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행동하라 | 66년생 겸손한 자세라면 성공을 거둔다 | 67년생 집다한 것에 개치지 말고 핵심에 매진 |
| 78년생 중간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 79년생 요령 피우지 말 것이라 | 80년생 손해만 입고 이로운은 적대다 |
| 90년생 파격적인 진보가 있겠다 | 91년생 남자로 관재구설 운을 주의하라 | 92년생 귀하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 것 |
| 57년생 한 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 | 58년생 은인은 은인으로 알아야 한다 | 59년생 외관은 보잘 것 없더라도 실속은 있다 |
| 69년생 정확하게 끈기 갖고 임해야 성과 있다 | 70년생 발전은 기약하게 될 것 | 71년생 자금 용통이 순조로워질 것 |
| 81년생 작은 것이 쌓이면 붓을 터지듯 한다 | 82년생 귀하의 마음부터 우선 잡아라 | 83년생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길하다 |
| 93년생 노력을 기울이면 성취하겠다 | 94년생 예기치 않는 지출이 보인다 | 95년생 성사 가능성이 높다 |